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은 뒤 행복을 묻는 역설

제공·제작 디씨지플러스, 블루스튜디오 | 감독 윤종찬 | 출연 현빈, 이보영 | 개봉 11월 26일

기억은 대개 참혹하다. 언제나 선택적이고 배타적인 기억의 본성상 남겨둔 것과 지워버린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대개는 아름다운 기억이 삭제된다. 그러니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그럼에도 기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내력이 있을 법도 하다. 기억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역설적 의미 부여가 있지 않은가 싶다.

작중인물의 참담한 기억을 더듬어가는 일련의 영화들을 통해 역량을 증명한 바 있는 윤종찬의 새 영화 〈나는 행복합니다〉는 이 기억의 역설 위에 있다. 제목부터 삶에 대한 역설적 의미가 두드러지는 이 영화는 기억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사연을 따라간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 자의인지 타의인지 정신병원까지 이른 과대망상증 환자 만수(현빈)는 뺏속까지 윤종찬적인 인물이다.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파트를 감도는 치명적 기억의 소환을 받은 〈소름〉의 주인공 용현(김명민)이나 먼 과거의 꿈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사멸한 〈청연〉의 주인공 박경원(장진영)처럼 만수는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살기 버거운 인물이다. 정신병원에서 자기동일성을 부정하는 그에게 불행의 기억은 끈질기게 따라다닌다.

〈나는 행복합니다〉는 알려진 대로 소설가 이정준의 단편 〈조만득씨〉를 각색한 영화다. 표면적으로 정신병원에서 나온 주인공이 일가를 몰살시키는 소설의 결말이 더욱 잔인한 듯 보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에 갖든 어둠도 결코 가볍지 않다. 〈소름〉에서 혼령 들린 아파트에 잠긴 극도의 어둠을 장진영의 일그러진 얼굴을 통해 드러냈던 윤종찬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둠을 정신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소름〉에서 추악한 사연과 일그러진 욕망을 묻고 있는 낡은 아파트는 뒤틀린 욕망과 내상으로 얼룩진 괴이한 생명체처럼 보인다. 캐릭터에게만이 아니라 사물이나 공

■ SYNOPSIS

치매에 걸린 엄마와 도박 빚을 남겨두고 자살한 형 때문에 돈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걸린 만수(현빈). 그는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정신병동의 생활이 즐겁다. 그리고 수호천사 같은 개인 간호사 수경(이보영)이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 수경은 연인에게 버림받고 직장암 말기의 아버지를 간호하며 괴롭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고민 하나 들어줄 사람 없는 현실이지만 만수의 영동한 행동으로 위안을 받는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만수는 점점 과대망상증이 심해져 강도 높은 치료를 받게 되고 수경 역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간에 특별한 인상을 부여하는 특유의 연출 방법은 〈나는 행복합니다〉에서도 여전하다.

〈나는 행복합니다〉에는 등장인물만 큼이나 중요한 두 공간이 등장한다. 주인공 만수와 치매 걸린 노모가 살고 있는 카센터에 딸린 쪽방이 하나요, 만수가 과대망상증으로 인해 입원하게 되는 정신병동이 다른 하나다. 감독은 정신병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이를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가르는 대신 공간과 맺는 관계를 통해 재정의한다. 시간의 플래시백으로 연결되는 두 공간은 주인공 만수에게 각각 현실과 판타지를 제공한다. 종종 치매에 걸린 노모와 도박에 미친 형이 강도처럼 드러나는 만수의 집은 감당하기 힘든 잔인한 현실의 장소다. 마침내 현실의 끈을 놓은 만수가 스스로를 대부호와 동일시하게 되는 정신병동은 명백하게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를 제공한다.

〈나는 행복합니다〉에 이르러 과대망상이라는 병리학적 상황으로 구체성을 띤 현실과 판타지의 대결은 간호사 수경(이보영)에게도 해당된다. 그녀의

현실은 실성한 환자들만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질병과 싸워야 하는 병원이고, 그 병원에서 벗어난 순간 일말의 안식이 수경을 찾아준다. 애통한 것은 수경의 현실(병원 안)은 만수의 판타지이고, 만수의 현실(병원 밖)은 수경의 판타지라는 것이다. 이 화합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선택의 문제가 개입된다.

윤종찬은 광인으로 있었으면 행복했을 만수에게 제정신을 찾아주고, 끝까지 현실과 맞서보려 했던 수경을 거이 이 병원 밖으로 끌어내 길가에 덩그러니 세워둔다. 결과적으로 둘은 모두 병원을 떠난다. 아름다운 것만 취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리라는 기억을 부정하려 했던 남자에게는 긍정을, 현실을 끌어안으려 했던 여자에게는 그로부터의 해방을 준 것이다. 망상은 안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삶은 여전히 문제인 것이다. 이 역설의 결론 안에서 윤종찬은 행복을 묻는다.

장병원(영화평론가)

CREDITS

staff

제공_소빅창업투자 디씨 지플러스 제작_블루스튜디오 배급_영화사 진진 제작투자_박현태 기획_배용국 제작_배용국 윤일중 투자총괄_김영돈 이병우 투자책임_신혜연 투자기획_김성환 원작_이창준 각본/감독_윤종찬 프로듀서_김영근 촬영_이창재 조명_최석재 미술_백경인 편집_경민호(디지컷) 동사녹음_정육창 음악_김동기 조감독_이진구 제작실장_박상윤 의상_오상진(마르미) 분장_조아라 세트_윤일랑(난드집) 수중촬영_조덕연 Sound Supervisor_서영준(KOFC) C.G.I_인사이트 비주얼 특수효과_김광수(익스트림FX) Digital Intermediate_HFR 제2조 감독_최상훈 연출부_박정환 류수훈 스크립터_이정아 제작부장_오원식 좌경우 제작부_오종환 제작지원_윤금순 촬영팀_정상훈 조영상 김화섭 GRIP_방성환(무브먼트) Digital image technician_송연우 노병욱 차호준 수중촬영팀_조대연 안종현 신명진 박영규 조세은 조명팀_유경수 오석필 강선희 유혁준 이학수 조해진 김평기 조명발전차_이종원(WON) 조명크레인_금진 크레인 미술팀장_김세화 미술팀_김홍기 이민희 의상팀_조선영 김정숙 분장팀_김효진 세트팀장_김광섭 세트팀_인현목 이동철 신성은 세트진행_이광현 세트화장_김현정 작화팀_김혜린 김혜드니 유진아 김유미 붐오퍼레이터_김동표 스탠트_강종 특수효과팀_도광섭 김진호 추광호 편집 어시스턴트_이승환 김도원 Visual Effects Supervisor_강종의 손승현 Composite Supervisor_이성규 Lead 3D Supervisor_정환수 Visual Effects Producer_민선혜 Project Coordinator_장문선 System Administrator_권민재 Matte Painter_황금순 제작 관리_이항미 마케팅_엔니네 홍보사

cast

만수_현빈
수경_이보영
형철_김성민
만수모_손영순
수경부_정재진
이강_최종률
만철_이찬영
영숙_박효주
봉철_박노식
승식_김대호
승복_박영서



〈백야행 - 하얀 어둠 속을 걷다〉 허물어진 논리와 일관성 사이를 걷다

제공·제작 시네마서비스 | 감독 박신우 | 출연 한석규, 고수, 손예진 | 개봉 11월 19일

히가시노 게이고의 미스터리 소설을 각색한 〈백야행〉은 살인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은신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남녀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들에게 공소시효가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 어릴 때 저지른 살인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누구도 그들을 쫓지 않고, 위기를 맞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녀에게는 욕망이 있다. 미호(손예진)는 당당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고수)은 그녀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헌신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고, 그러면서 왜 공소시효에 집착하는 것일까.

건조하고 냉철한 원작을 신파로 전락시켰다는 일부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작소설은 주인공 남녀의 심리를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만나는 과정도, 동기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다만 독자가 유추하게 만들 뿐이다. 인물의 캐릭터를 오로지 정황묘사만으로 일관하는 원작 덕에 각색을 할 때는 욕심을 내게 된다. 그 인물들의 동인을, 흔들리는 마음을 창조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이다. 그랬을 때 〈백야행〉의 남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바로 신파다.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다.

〈백야행〉은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때의 선택 역시 신파였다. 인물에 대해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드라마의 시청자는 대부분 수동적이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영상에 개입해 의미를 끌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드라마 〈백야행〉은 유키호와 류지가 신파의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다. 지독한 운명이 그들을 가혹한 환경으로 몰아넣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신파의 절정이었다. 원작

■ SYNOPSIS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이 사건이 14년 전 한 남자의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수(한석규)를 찾아가고, 동수는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요한(고수)이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한편 재벌 승조를 위해 그의 약혼녀 미호(손예진)의 뒤를 조사하던 비서 시영은 동수와 우연하게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과 미호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14년 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미호의 어머니였던 것. 요한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지만 미호는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에는 전혀 없는 내용을 추가해,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하여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영화 〈백야행〉은 신파로도 일관하지 않는다. 원작의 건조함과 드라마의 신파를 적당히 섞어놓기만 한다. 즉 범죄 과정을 묘사할 때는 냉혹한 모습만 보여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때는 갑자기 신파로 돌변한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 영화 〈백야행〉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미호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성폭행을 당한 소녀가 성장하면 어떤 인간이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한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런 질문들이 〈백야행〉에서는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된다. 그저 범죄의 과정을 묘사하고, 난데없이 '하얀 어둠'만을 걸어왔어라는 독백을 할 뿐이다. 사실 이런 허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백야행〉이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스릴러는 긴장감으로 유지되는 장르지만, 그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논리와 일관성이다. 즉 전제

가 틀렸거나 인물들의 동기가 뒤죽박죽이면 긴장감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호와 요한을 쫓는 형사가 그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보자. 원작에서는 일종의 기성세대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이 사건에 집착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이 때문에 집착한다. 형사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그런 설정은 조금 이상하다. 시체를 발견한 것이 바로 그 통로를 통해 들어갔던 아이인데 그 사실을 형사의 입으로 말해 놓고, 단지 형사의 집착을 설명하기 위해 비논리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한국 스릴러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장면의 긴박감이 아니다.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와 인물들의 동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리적인 장르인 스릴러에서 논리와 일관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긴장은 커녕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때 기대할 것은 액션밖에 없지만 아쉽게도 〈백야행〉은 액션 스릴러가 아니다. 〈백야행〉은 한국 스릴러의 일반적인 오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태작이다.

김봉석(영화평론가)

CREDITS

staff

제공·배급 시네마서비스
투자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시네마서비스 공동제작 폴룩스픽처스 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공동제작 CJ엔터테인먼트 mvp 창투문화산업투자조합 베넥스영화전문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콘텐츠전문투자조합그린손해보험 이수창업투자 골드레인 베스트먼트 공동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강우석 제작투자 이병혁 공동투자 김경아 남기문 서범석 김학범 채운 하정원 투자총괄 권병균 공동투자 총괄 최준환 감독 박신우 프로듀서 임지영 조감독 어정일 라인프로듀서 전민 기획 안은미 임지영 원작 히가시노 게이고 〈백야행〉 각본 박연선 박신우 촬영 이창재 조명 추인 프로덕션 디자인 송해진 음악 조영욱 동시녹음 조민호(LIVE) 편집 이상민 Sound Supervisor 김석원 감창섭(BLUECAP) 시각효과 2L(류재환) 소품 박재완(BLOCK BUSTER) 특수효과 홍장표(이펙트 스톱) 의상 전홍주 분장 최영심 제작부장 신우균 유미연 제작팀 이호석 김동식 김동근 조현덕 연출팀 고지광 김보성 김정옥 이수지 최승혁 스크립터 이응규 현장편집 배예은 스토리보드 장강희 촬영팀 조영섭 변봉선 송호연 조대근 김도희 김순석 조명팀 박민수 김동선 박주석 백형삼 임진선 장덕재 원성욱 황한이 아트 디렉터 송윤수 소품팀장 오진석 민경린 붐 오퍼레이터 최민호 송승현 정기철 세트시공 아트서비스 미술센터 특수효과 실장 윤대원 미술 최동현(Triple-A) Film Laboratory 서울무비릭스 마케팅 모히토

cast

한석규 한석규
유미호 손예진
김요한 고수
이시영 이민정
차승조 박성웅
요한 모 최화연
박태호 정진
약통 임지규
조민우 방중현
박미연 윤다경
강재두 정인희
차영은 홍지희